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노(老) 성도의 신앙고백

(시편 71:1-2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에게서 특별히 감사할 축복이 발견되지 않거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러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권에 속한 시들의 대부분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시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71편은 70편의 연속 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경우 본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의 처음 3절은 다윗의 시인 시편 31편 서두에서 직접 인용된 것으로 다윗이 늙은 나이에 노년에 관해 쓴 것입니다.

저자는 공인으로 경이로운 사람, 잘 알려진 모범자, 많은 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자, 위대한 사람 또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본 시는 깊은 신앙을 가진 노(老) 성도의 기도입니다.

1. 노년기와 그 문제들

늙는다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대접받는 문화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영광과 존대를 받고 그들의 지혜는 가치가 있다는 양상은 우리 사회는 물론 서양사회에서는 벌써 지나간 얘기일 뿐입니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노인 문제는 우주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전년의 강함과 능력을 상실하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9절)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늙을 때까지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서 늙은 나이에도 계속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신을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2. 과거를 회상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년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알았습니다(5-6절).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징조’(7절)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과 불행에서도 특별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징조’에는 다윗이 축복과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 모두가 내포됩니다.

3. 앞을 바라봄

어떤 이들은 늙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것, 잃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현재가 불만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앞을 내다 보는 것이 두렵고, 죽음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셨음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며 미래

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영광 중에 자기 집으로 옮기실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대에게 보일 하나님에 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17-18절).

성도는 다음 세대에 기독교 진리를 전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늙은 집사나 장로가 목사보다 성경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하나님과 더 오래 함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젊은이들 보다 더 오래 경험했으니 젊은이들을 돕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하나님을 찬양한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다윗은 현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칭의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주 ‘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당신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표준을 사람의 삶에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후대에 전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에 신실하셨고, 그가 늙었을 때에도 신실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다윗은 오는 세대에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그 분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게 외쳐야 할 간증이고 설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 이웃을 수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늙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9절).

성도의 두 날개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노(老) 성도의 찬송은 미래 소망과 과거 은총에 대한 기억에 기인합니다. 그러기에 찬송에는 후식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특별히 감사할 축복이 발견되지 않거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러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것입니다(23절).

미래 소망과 과거 은총을 기억하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 성경암송대회

오늘 교육 부서별 예선 26일(금) 7시 - 602호에서 본선 열려

디모데 후서를 본문으로 하는 2007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교육부서 별로 예선을 갖는다. 그동안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부서의 성도들이 시간을 할애하며 정성껏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여왔다.

오늘 부서별로 치러지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26일(금) 오후 7시 602호실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본선 채점기준은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이다. 본선에서 입상을 한 성도들은 2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암송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대선후보 초청강연

29일(월) 오후 2시: 민주당 이인제 후보 오후 3시 50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에서 개강한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지난 9월 3일(월)부터 11월 5일(월)까지 10주간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쉽'을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각 정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확정지었다.

29일(월) 오후 2시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강연을 하고 이어서 3시 50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강연을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현재 섭외 중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강연은 서울교회 본당(2층)에서 한다.

2008년 청년부·권사회 분할기로 연령에 맞게 효과적 운영위해

우리교회는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청년부와 권사회를 분할하기로 하였다. 청년부와 권사회는 회원들의 분포가 10년 이상 20년까지 크게 벌어져 있어 연령차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이른바 세대 차이를 없애고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분할하게 되었다.

청년부는 78년생(30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청년1부와 청년2부로, 권사회는 제1권사회(60대), 제2

권사회(50대)로 분할하게 되며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특별히 청년부는 2007년 4/4분기부터 포레벌 G.B.S(그룹성경공부)를 실시하여 분할을 준비할 예정이다. 권사회는 살롬권사회(70대 이상), 제1, 제2 권사회로 나뉜다.

청년부와 권사회가 더욱 부흥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초 등 부 -

친구·학부모 초청 - 작은 순례자의 합창 Miracle Generation

10월 27일(토) 오후 5시 - 웨스트민스터 홀

초등부(부장 서문석 장로)에서 사명자 대회의 일환으로 친구와 학부모를 초청하는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갖는다. 작은 순례자의 합창은 초등부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부모님을 교회에 초청하여 전도하는 잔치로 찬양과 율동, 외부 강사 초청, 매직 전도시범등

다양한 순서로 준비된다. 초등부는 이번 행사를 귀중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초청권과 전도지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등부 어린이와 학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사명자의 기도 - 선교의 사명자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상식 · 김정옥(인도 선교사)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13:47-48)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 증거자로 세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주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차별과 불평등인 카스트제도와 힌두교가 무너지고, 수많은 신들과 악한 영들, 음란과 어두움의 무리들, 우상과 거짓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과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천민들, 가난과 멸시 그리고 소외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약 450만 명의 한센 병 환자와 수많은 시각과 지체 장애우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을 먼저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되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그 땅에서 재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듯 인도인들을 사랑하며, 섬김과 겸손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11억의 인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를 향하여 주님을 증거 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서부전선 최전방 '새생명 교회' 진중세례식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거듭나다!

이갑진 장로
(비전2020운동 위원장)



인 '새 생명 교회'에 내려주시는 세례식의 열기는 밤이 깊어 가며 더욱 뜨거워져 갔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깃든 선물도 뒤 따랐다. 선교사님에게는 최신행 노트북 컴퓨터 한대를, 세례자들에게는 겨울 손 장갑과 타올을, 그리고 참석한 모

지난 10월17일(수) 저녁 서울교회가 파송한 이경헌 선교사님이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새 생명교회'에서 135명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 군병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 종

운 목사님의 말씀선포와 세례와 성찬집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서울교회 교역자와 장로님들, 호산나 찬양대, 성례부 섬김위원, 이경헌 선교사 기도 후원회 대표와 비전 2020 임원들 그리고 기독교 군 선교 연합회 대표자들, 믿음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과 군 교인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한 350여명의 참석자들이 예배당 복도와 문 앞까지 꽉 메운 채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세례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인적이 드문 야지의 나무 숲 냄새가 유달리 상큼한 가을밤의 공기와 어우러지는 최전방, 706 특공연대와 132 야전공병대대, 5000-2 사격대 장병들의 복음의 전당

든 장병들에게는 신세대 병사들의 기호품 일 번인 햄버거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어졌다. 저녁 8시40분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두 시간 반의 늦은 밤길에 잠으로 감사하였다.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2020년까지 군대의 복음화를 통하여 이 민족의 75%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비전2020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의 군 선교사 파송증을 받고 군에 복무 중인 27명의 우리의 장한 아들들이 오늘도 그들의 근무지에서 복음전파의 선봉장이 되고 있기를 기도한다.

만민에게 전도 - 태신자 초청음악회

농부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윤숙지 집사(3교구)



7년 전 아이의 유학과 함께 저의 외국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교회에서 보내온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저를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였고 주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내로 불일을 보러 가던 중 익숙한 길이 있음에도 표지판을 잘못 보아 그만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마약환자들이 우글거리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중얼거리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당황했지만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내가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처참한 광경들은 오랫동안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일로 인해 나는 내 안에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성령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놀랍고 예상치 못한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에 가득 찼던 나는 미지근한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되었고, 더불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국 후 화요전도학교 개강과 함께 20기 훈련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강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날같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12주의 강의와 훈련은 나를 훈련자로 세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씨를 뿌리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밭을 일구어 나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태신자 초청 음악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헌신예배가 10월 28일(주)에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청년부 헌신예배와는 달리 이번 헌신예배 2부 순서에는 평양 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100만인 전도운동에 마침표를 찍는 행사로 태신자 초청 음악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에서는 한 해 동안 100만인 전도운동을 위해 70인 전도대 토요 오후 전도팀에 주력부서로 대학부와 함께 활동되어 매주 토요일에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초청 음악예배와 같이 중요한 행사를 청년부 헌신예배와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저희 청년부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전도의 열매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2부 순서에는 음악회를 열어 유명 음악가 초청 연주와 성가 독창, 헬시바 중창, CCM가수(소향) 초청 찬양, 단막극과 청중과 함께하는 찬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태신자를 품고 기도와 전도로 귀한 열매를 맺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 캠페인
 < 사랑의 "먼저" 운동 >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먼저"운동 실천으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1.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새가족을 "먼저"
2. 인사는 내가 "먼저"
3. 실천은 종직자가 "먼저"
4. 계단은 젊은이가 "먼저"

찬양대 순례 - 아멘 관현악단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영조 집사
(아멘관현악단대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멘 관현악단은 악기를 이용하여 천지만물과 함께 또한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관현악단의 시작은 실로 미약하였지만, 이제는 부족한 가운데에도 30명 가까운 대원으로 관악 현악 타악기의 어엿한 체계도 갖추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이 칠순을 바라보시는 집사님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음악 전공자 뿐 만 아니라, 장차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는 꿈나무들, 그리고 비전문가이지만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청장년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관현악단은 클라리넷을 전공한 임범창 집사의 지휘 아래, 모든 대원들이 화합하여 주일 3부 예배의 헌금송을 담당하며 교회의 주요 행사 때에 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이다.” (시편 150:3).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생각 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열리는 오늘 저녁 특별 찬양은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의 노래로 드러진다. 숙명 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네덜란드 왕립 음악원 최고학부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임청화 교수는 현재 백석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소정 성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나의 찬미" (A.Crouch곡) 외에 두 곡으로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목) 필리핀 로잔대회 주제강연을 위해 출국한다. 26일(금) 70인 목사회의를 소집한다.

■ 9대 피택장으로 두 분 노회고시 합격 : 지난 5월 27일(주) 찬양예배 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제9대 장로로 피택 받아 그 동안 훈련을 받아오던 이갑선 하인선 피택장로가 지난 10월17일(수) 서울강남노회에서 실시한 장로고시에 합격하였다. 이들은 11월 25일 교회설립기념주일에 임직을 하게 된다.

■ 연주회 : 장운식 집사(4교구) 서울국제기타페스티벌 10월22일(월)-27일(토) 월드글로리아센터(명일동)

■ 이사 : (7교구)강신태 집사 구귀순 집사 가정/ 은평구 신사2동 184-5 초원파크빌 202호

■ 주간식당 봉사 : 베드로선교회(10.21) 바울전도회(10.28)

■ 금주의 식사 : 호산나 학교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



제8회 화요정오음악회 23일(화) 순서는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준비된다. 오르간을 연주할 박소현 선생은 이화 여자 대학교 종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국립음대 졸업(Diplom), 독일 쾰른(Koeln)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Konzertexamen), 네덜란드 우트레흐트(Utrecht) 음대 졸업(Postgraduate Diploma),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독일 M?heim an der Ruhr 국제 오르간 콩쿨 3위 입상, 체코 Bmo 국제 음악 콩쿨 "Honorary Recognition" 수상, 덴마크 Odense 국제 오르간 콩쿨 3위 입상, 이태리 Battipaglia 국제 오르간 콩쿨 3위 입상 및 청중상 수상을 한 바 있다. 현재 장신대, 종신대 출강, 영락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플루트를 연주할 김은선 선생은 파리 Pual Dukas 국립 음악원 솔페지오, 실내악을 수료하고 파리 시립음악원 만장일치 수석 졸업, 파리 Jean de la Fontaine 예술 고등학교 졸업, Bourg-la-Reine 국립음악원 실내악 수석 졸업, Bourg-la-Rein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 월음 콩쿠르 입상, 2005. 프랑스 Lempdes National 음악 콩쿠르 1위없는 3위 입상.

1996-00. 파리 시립음악원 Symphonie Orchestra 단원 활동, 2003-05.Bourg-la-Reine Symphonie Orchestra 수석, 현재 CTS 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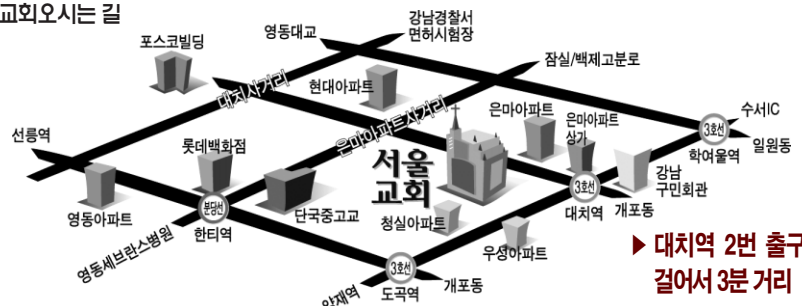
23일(화)에는 T. Dubois의 곡 외에 다수의 곡을 연주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